

## 9 John Calvin의 *Abnegatio Nostri*의 관점에서 본 주일성수

윤광원 박사 / 평택대학교, 조직신학



### 1.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도 서구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보다는 가정을, 영적인 일보다는 세상적인 일과 즐거움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오전에 예배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여가와 쇼핑을 즐기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드리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로 변화되었으며, 지역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를 찾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끓기는 것이 보편화되면서<sup>1)</sup> 주일예배 출석률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또한 주일성수의 의미가 주일 대예배<sup>2)</sup>에

1) 박용규, “교회사를 통해 본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 「목회와 신학」 141권 (서울 : 도서출판 두란노, 2001. 3.), 132.

2) 대예배라는 개념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 논문은 주일 오전 예배(대개 오전 11시 예배)가 대예배라고 불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참석하는 것으로 축소되고 있다. 한마디로 주일성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수평이동으로 점점 거대화되고 있는 일부 중 대형 교회를 제외하면,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성장률은 둔화, 침체되고 있다. 특히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들에서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위기의 상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 원인에 대하여 이원규는 종교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종교의 다원화와 여가산업의 발달과 같은 사회적 요인, 종교에 대한 신앙의 동기 약화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상실하는 등의 교회적 요인 등으로 밝혔다.<sup>3)</sup>

이와 같은 분석은 주일성수 약화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인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정욕의 문제를 간과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정욕의 노예가 되었다. 현대사회는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데 별다른 제재가 없다. 정욕의 노예가 된 인간은 이러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거나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한계 안에서 주일을 제한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사회적 상황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주일을 지키고, 그것도 외형적인 의식의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주일을 지키지 않거나 정욕을 충족시키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사회학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부차적인 방법으로 주일성수 약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sup>4)</sup>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3) 이원규, “주일성수가 흔들리는 원인은 무엇인가—종교사회학적 분석—,” 「목회와 신학」 63권 (서울 : 도서출판 두란노, 1994, 9), 40-46.

자칫 인간의 정욕을 채워 주는 방향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 있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쉼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인간의 쉼에 대한 정욕을 자극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일성수 약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신앙생활 문제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Abnegatio Nostri*<sup>5)</sup>의 관점을 통하여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일성수 약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Abnegatio Nostri*는 육신의 정욕(the lusts of our flesh)을 죽여 세속으로부터 경계선이 그어지고 구별, 분리되어<sup>6)</sup>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참으로 순결한 생활을 하며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4) 「목회와 신학」 63권 (1994년 9월호, 39-99)에서 “흔들리는 주일성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11명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논문을 기고하였고, 「목회와 신학」 141권 (2001년 3월호, 41-139)에서 “안식일에서 주일성수까지”라는 주제로 10명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논문을 기고하였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였다.

5) *Abnegatio Nostri*는 ‘우리들 자신의 부정’(denial of ourselves)으로 직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기부정’(self-denial)으로 번역한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 tr. Ford Lewis Battles(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3권 3장 8절, 이후로는 *Inst.*, 3. 3. 8 등으로 표기함; *Inst.*, 3. 7. 2; *Inst.*, 3. 7. 4; *Inst.*, 3. 7. 8; *Inst.*, 3. 20. 43; Randall C. Gleason, *John Calvin and John Owen on Motification : A Comparative Study in Reformed Spirituality*(New York : Peter Lang Publishing, Inc., 1995), 59-67; T. H. L. Parker, *Calvin :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London : Geoffrey Chapman, 1995), 89-95; Robert A. Peterson, *Calvin's Doctrine of the Atonement*(Phillipsburg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83), 78-79; Lucien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Atlanta, Georgia : John Knox Press, 1974), 104-05, 124.

6) Alfred Göhler, *Calvins Lehre von der Heiligung*, 유정우 역, 「칼빈의 성화론」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22.

부패한 가운데도 그 본성을 깨끗케 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적으로 그것을 억제해 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자리가 약간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sup>15)</sup> 달리 말하면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의 본성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할 뿐이다.<sup>16)</sup>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통제하시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그들이 뛰쳐 나오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윤법이 무서워서 그 굴레를 끊고 나와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사람들은 정직한 생활 방식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를 동경하도록,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탁월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위하여 일반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이려는 이유로 덕행을 추구하도록 섭리로써 인간 본성에 굴레를 씌우신 것이다.<sup>17)</sup>

칼빈이 지적한 대로, 선행에 대한 진지한 열성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야심이나 이기심, 그 밖의 악한 동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덕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악과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악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sup>18)</sup> 그의 지적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라고 인정하는 것도 순전히 불의이며, 정직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오염이며, 영광으로 여기는 것도 치욕에 불과하다.<sup>19)</sup>

로마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모두 죽음 속에 있고’(요일 5:12), ‘믿음으로 죽어야 하지 아니하는 모든

15) *Inst.*, 2. 3. 3.

16) *Inst.*, 2. 3. 4.

17) *Inst.*, 2. 3. 3.

18) *Inst.*, 3. 14. 3.

19) *Inst.*, 3. 12. 4.

것이 죄이며’(롬 14:23), ‘악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마 7:18; 뉘 6:43 참조)는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사악한 가르침이다.<sup>20)</sup>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시지 않고’, ‘주의 자비가 우리의 행위에 있는 모든 불의를 덮어 주시지 않으며’, ‘무한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행위에서 벌 받아야 할 점을 일소해 버리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에 의를 전가하실 수 없다.<sup>21)</sup>

칼빈은 죄가 우리 이성을 포함한 모든 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22)</sup> 성경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나 한 시대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집단의 인간들이 전체적으로, 또 항구적으로 부패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회개하도록 단순히 책망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함이다.<sup>23)</sup> 칼빈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능력 사이에서 방황하며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이중적인 언사를 발하는 신학자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였다.<sup>24)</sup> 그는 모든 교회사가들이 인간 안에 있는 이성의 건전함이 죄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상처를 입었고, 또 의지는 악한 욕망에 의해 아주 심한 노예 상태에 이른 것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의 견해가 정당함을 주장하였다.<sup>25)</sup>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이 오로지 갑각적 부분만이 부패하였고 이성은 전혀 결합이 없고 의지도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sup>26)</sup> 그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

20) *Inst.*, 3. 15. 6.

21) *Inst.*, 3. 18. 5.

22) 이정석, “칼빈의 이성관,” 「국제신학」 제2권 (서울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0), 140.

23) *Inst.*, 2. 3. 2.

24) *Inst.*, 2. 2. 9.

25) *Inst.*, 2. 2. 4.

26) *Inst.*, 2. 2. 4.

에 대한 칼빈의 주장에 대하여 위험한 것으로 보고 혐오한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것 못지않게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sup>27)</sup>

칼빈은 대적자들이 누가복음 10:30의 여행자의 비유를 통하여 인간에게 올바른 이성과 의지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는 성경의 참뜻을 고려하지 않고 고안해 낸 해석이며, 에베소서 2:5의 ‘허물로 죽은’, 에베소서 5:14의 ‘잠자는 자들과 죽어서 묻힌 자들’, 요한복음 5:25의 ‘죽은 자들’ 등의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이성도 예외 없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sup>28)</sup>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본성이 죄의 씨요 악한 의지를 내포하고, 선이 결핍되어 있거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풍성하게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있을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sup>29)</sup> 영혼의 모든 부분이 죄에 의하여 점령되었기 때문에 부패가 영혼의 일부분에만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순결하게 남아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sup>30)</sup> 인간은 마치 홍수에 휩쓸린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되어 어느 부분도 죄에 물들지 않은 곳이 없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대로 육신과 관련된 생각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이다(롬 8:7). 칼빈의 지적대로 인간의 전 존재는 정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sup>31)</sup> 주일성수 문제를 인간의 정욕을 간과하거나 채워 주는 방향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인간의 정욕을 부정하는 *Abnegatio Nostris*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육의 정욕은 자신에 대한 관심, 곧 소유에 대한 열망, 권세에 대한

소망, 사람들의 호의, 인간적인 영광을 얻고자 하는 야심과 모든 갈망, 그 밖의 더 은밀한 해악 등 세상적 욕심을 가지게 한다.<sup>32)</sup> 타락한 이성은 정욕적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때에도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마음을 만족시키는 악한 욕망들을 관용하는 방향으로 율법을 왜곡할 뿐이다.<sup>33)</sup> 인간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또는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주일성수 문제에 접근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마태복음 19:16~22(막 10:17~31, 뉘 18:18~30)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의 경우, 그는 계명을 외적으로는 훌륭하게 모두 지키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율법의 정신에 합당한 삶은 아니었다. 계명의 외적 형식을 훌륭하고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더라도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게 살았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정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였다. 율법의 저울 위에 우리 자신을 놓고 달아 보면 자신이 내세우는 의가 얼마나 허구적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되고, 자신이 순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모두 무수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된다.<sup>34)</sup>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율법 어디에도 없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탐욕을 버리라는 율법을 명백히 어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이 청년은 자기를 부정하지 못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신 스스로가 보여 준 셈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칼빈도 마태복음 19:20 주석에서

27) *Inst.*, 2, 2, 1.

28) *Inst.*, 2, 5, 19.

29) *Inst.*, 3, 1, 8.

30) *Inst.*, 3, 1, 8.

31) *Inst.*, 3, 1, 8.

32) *Inst.*, 3, 7, 2; *Comm.* Mt. 16:24.

33) *Inst.*, 2, 2, 24.

34) *Inst.*, 2, 7, 6.

밝혔다.<sup>35)</sup> 그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았다면 주변의 가난으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쌓아 놓고 살 수는 없었다.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자기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곧 자기를 부정하고 소유의 삶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서는 안될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Abnegatio Nostri*가 없이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뜰 수도 없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율법의 정신에 합당한 삶도 살 수 없다. 부자 청년 관원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Abnegatio Nostri*였다. 마찬가지로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Abnegatio Nostri*라고 할 수 있다.

죄악된 인간은 자신의 정욕을 어떻게 어느 정도 채울 것인가의 관점에서 주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또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지킬 것인지를 늘 저울질하게 되어 있다. 부자 청년 관원의 경우 안식일 준수를 비롯하여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그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분석해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주일성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다루어야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정욕을 어떻게 죽이느냐, 곧 *Abnegatio Nostri*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기를 부정하지 못할 때는 가장 추악한 죄악들이 부끄럼 없이 격동하거나, 겉으로 보기에도 선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락한 명예욕으로 더럽혀지며,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랑하거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36)</sup> 마찬가지로 *Abnegatio Nostri*가 없는 주일성수는 예수님의 비난을 면치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될 수밖

에 없다.

칼빈이 「고린도전서 주석」 헌서(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하찮은 소유물 하나라도 큰 어려움 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 만큼 인간은 정욕의 노예이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이나 저택이나 높은 신분을 미련 없이 버리고 세상에서 대단히 귀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기쁘게 그것들을 멸시할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sup>37)</sup>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을 상기하고 묵상하고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성수 문제를 *Abnegatio Nostri*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감정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오직 유일한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Abnegatio Nostri*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Abnegatio Nostri*를 통하여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sup>38)</sup>

우리는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소유하려고 하고, 정욕을 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채우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할 수 있는 그것,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와 같이 모두 내어 던지

37) "It ought, indeed, to have been more than simply common and customary among Christians, not simply to leave contentedly behind them estates, castles, and princely domains, where Christ cannot be followed otherwise, but even cheerfully and willingly to despise, in comparison with Him, everything that is most valued under heaven. .... Scarcely one is induced, without the greatest difficulty, to renounce the smallest conveniences : so very far are they from being prepared to abandon, as were befitting, life itself. Above all things, I should wish that all resembled you in that first of all excellencies self-denial."

38) *Comm.* Ge. 22:12 : "And as Abraham showed that he feared God, by not sparing his own, and only begotten son ; so a common testimony of the same fear is required from all the pious, in acts of self-denial."

35) *Comm.* Mt. 19:20.

36) *Inst.*, 3. 7. 2.

라고 하신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Abnegatio Nostri* 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진 이스라엘의 경우는 드물고 탁월한 *Abnegatio Nostri*의 증거이다.<sup>39)</sup>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의 갈망과 소유와 생명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은 *Abnegatio Nostri*의 본질에 속한다.

물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모든 재산을 바다에 던져 버리거나 가족과 작별을 고하고 인간성을 포기하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수도원적 금욕주의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칼빈이 누가복음 14:33 주석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진정한 *Abnegatio Nostri*는 수도원적 금욕주의자들과 같은 행동이 아니라 어느 때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롭고 얹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각오를 갖추고, 자신의 직업을 계속하며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sup>40)</sup> 마찬가지로 주일성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일성수가 모든 종류의 쉼을 포기하는 노예적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얹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언제든지 모든 소유와 쉼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안식일에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외형적인 의식의 안식만을 주장하는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비난한 것은 안식일의 적합한 용법이 *Abnegatio Nostri*여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sup>41)</sup> 칼빈이 어거스틴의

39) *Comm. Jos.* 6:20 : "Dismissing these considerations, which might have interfered with their duty, it was a proof of rare and excellent self-denial, voluntarily to cast away the spoils which were in their hands, and the wealth of a whole city."

40) *Comm. Lk.* 14:33.

41) *Comm. Ex.* 20:8 : "On this ground Isaiah, when he reproves the hypocrites for insisting only on the external ceremony of rest, accuses them of 'finding their own pleasure' on the Sabbath, (*Isaiah 58:13*) as much as to say, that the legitimate use of the Sabbath must be supposed to be self-renunciation, since he is in fact accounted to

「하나님의 도성」 22권 30장을 인용하면서 지적했듯이,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것마저 일종의 정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을 어기는 것이다.<sup>42)</sup> 그러므로 *Abnegatio Nostri* 없이는 주일을 바르게 지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이나 안식일 때문에 곡식을 팔 수 없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월삭이나 안식일 의식에 참여하였다(암 8:5). 그들은 탐욕을 베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 따라서 탐욕을 베리는 *Abnegatio Nostri*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일을 성수할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안식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까지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따라서 그때까지 우리는 주일에 대한 끊임없는 목상을 통하여 정욕과의 싸움을 지속해야 한다.<sup>43)</sup>

## 2) 무위(無爲)의 쉼이 아닌 예배와 묵상을 위한 *Abnegatio Nostri*의 실천

정욕의 노예가 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급선무는 다름 아닌 정욕을 떨쳐 버리는 *Abnegatio Nostri*라고 할 수 있다. 주일성수는 정욕을 떨쳐 버리는 *Abnegatio Nostri*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일을 그치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원하지 않는다.<sup>44)</sup> 그것은 인간의 정욕 때문이다. 이러한 정욕을

cease from his works who is not led by his own will nor indulges his own wishes, but who suffers himself to be directed by the Spirit of God."

42) *Comm. Ex.* 20:8 : "And this emptying out of self must proceed so far that the Sabbath is violated even by good works, so long as we regard them as our own ; for rightly does Augustin remark in the last chapter of the 22d book, *De Civitate Dei*."

43) *Inst.*, 2. 8. 30.

44) *Inst.*, 2. 3. 9.

부정하고 자신의 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곧 그것이 바른 주일성수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요 5:1-18). 유대인들과 첨예한 논쟁을 일으키시고 펫박을 받으시면서, 심지어 그들에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 말아야 할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전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임을 보여 주셨다. 주일성수는 단순히 어떤 일을 쉬거나 정지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와 묵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들을 채우는 일들을 부정하는 *Abnegatio Nostri*의 실천이 바른 주일성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자연을 윤택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인간의 건강이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거나, 하루 쉬는 것이 6일간의 일을 위하여 오히려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주일성수는 우리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사적인 일들을 그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성수는 인간의 정욕을 버리는 *Abnegatio Nostri*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으로부터 쉬게 하셨던 것은 인간의 쉼에 대한 욕망의 충족이나 필요성, 또는 남은 6일 동안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다만 예배를 방해 할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sup>45)</sup>

45) *Comm.* Lev. 19:30, 26:2 : "From these two passages it is manifest that the service of the tabernacle was annexed to the Sabbath, and that the two things were not only connected by an indissoluble tie, but that the rest from labor had reference to the sacrifices ; since it would

칼빈이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안식일에 모든 가족은 물론 종들과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할례 받지 않은 나그네들과 더 나아가 신앙과 관련을 맺을 수 없는 영혼이 없는 가축들까지도 쉬게 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체적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모범을 제공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미혹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강제적 안식이었다.<sup>46)</sup> 그러므로 주일을 단순히 인간의 쉼의 필요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주일성수의 본뜻에 어긋나게 된다.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이것을 가장 엄격하게 가르치셨다.<sup>47)</sup> 하나님은 마치 안식일 준수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과 같다는 뉘앙스로 안식일이 더럽혀진 것에 대하여 책망하셨다.<sup>48)</sup> 그만큼 안식일 계명은 율법의 모든 계명 가운데 각별히 존중되었다.<sup>49)</sup> 그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일을 쉬는, 곧 육적 욕망들을 버리는 *Abnegatio Nostri*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주일을 참되게 지키는 것은 *Abnegatio Nostri*와 회개로 이루어진다고 주석하였다.<sup>50)</sup> 주일을 지키는 의의는 *Abnegatio Nostri*에

---

have been a mere mockery to rest without any ulterior object ; nay more, after Moses has spoken of the rest, he seems to subjoin the reverencing of the sanctuary, as if it were the generic ordinance ; so that the people might understand that all impediments were removed which are wont to withdraw them from the service of God."

46) 양낙홍, "칼빈의 안식일 신학," 「칼빈연구」 제3집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248.

47) *Inst.*, 2. 3. 9 : "The Lord demands nothing stricter than for us to observe his Sabbath most scrupulously [Ex. 20:8 ff. ; Deut. 5:12 ff.], that is, by resting from our labors."

48) 출 31:16-17 ; 갤 20:12-13, 22:8, 23:38 ; 램 17:21-27 ; 사 56:2

49) *Inst.*, 2. 8. 29.

50) *Comm.* Isa. 58:13 : "As he formerly included under the class of fasting all ceremonies and outward masks, in which they made their holiness to consist, and showed that they were vain and unprofitable ; so in

있고 진정한 *Abnegatio Nostri*는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죄악스런 성향을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므로 주일은 단순히 노동을 그치고 육체적으로 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율법이 사람들을 향하여 쉬라고 명할 때 거룩한 일까지 쉴 것을 명한 것은 아니다.<sup>51)</sup> 사적인 일만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끌어 둔다면 잘못된 것이다.<sup>52)</sup>

### 3) 미신적 의식의 준수가 아닌 영적 안식으로서의 *Abnegatio Nostri*의 실천

칼빈이 간파했듯이 안식일의 실체는 영적 안식이기 때문에 그림자인 의식으로서의 문자적 안식은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다.<sup>53)</sup> 그러나 일곱째 날의 휴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영적 안식은 영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려로 제정된 주일은 이러한 영적 안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일성수의 목적인 영적 안식은 육신의 금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거나 자신의 기호에 탐닉해서는 안 된다.<sup>54)</sup> 주일은 자신을 죽이는 표시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죽임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에 머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혼합되어 불신자들로부터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의미인 진

---

this passage he points out the true observation of the Sabbath, that they may not think that it consists in external idleness but in true self-denial, so as to abstain from every act of injustice and wickedness, and from all lusts and wicked thoughts. .... Certain classes of duties are again enumerated by him, by which he shows clearly that the true observation of the Sabbath consists in self-denial and thorough conversion."

51) *Comm.* Mt. 12:5; *Comm.* Jn. 9:15.

52) *Comm.* Lk. 13:14.

53) 양낙홍, 233.

54) *Comm.* Ge. 2:3.

정한 주일성수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한 *Abnegatio Nostri*를 연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sup>55)</sup> 하나님은 우리가 일에서 손을 빼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내적인 성별을 원하셨다.<sup>56)</sup> 그러므로 자신들의 의지를 만족시키고 관찰시키면서도 다만 외형적으로만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선이며, 주일의 목적인 *Abnegatio Nostri*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sup>57)</sup>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준수하면 다윗 왕국의 영구성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는 단순히 의식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뛰어난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에 대한 성별(성화)의 상징이며, 이는 우리 자신의 이성과 사상들과 육의 감정들을 포기하는 *Abnegatio Nostri*에 의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통치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sup>58)</sup>

55) *Comm.* Eze. 20:12 : "But if we desire to understand the matter better, we ought first to lay it down that the Sabbath was the sign of mortification. God, therefore, sanctifies us ; because when we remain in our natural state we are there mixed with others, and have nothing different from unbelievers : h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gin by dying to ourselves and the world, and by exercising self-denial ; and this depends on the grace of God."

56) *Comm.* Eze. 20:20.

57) *Comm.* Eze. 20:13-14 : "For hypocrites think they have discharged every duty by abstaining from all work ; but the Prophet replies that this is a mere laughing-stock, since they fast on a Sabbath for strife and contention, and then that they gratify their will, which is opposed to self-denial."

58) *Comm.* Jer. 17:24-25 : "When therefore the Prophet thus speaks, If ye carry no burden through the gates of this city, that is, If ye observe the sabbath-day, the perpetuity of the kingdom shall be secured to you, .... when he thus speaks, he had doubtless, as I have said, a regard to a true observance of the day, which consists not in the naked rite, but included something greater and more excellent, even that they

주일성수의 목적인 영적 안식으로서의 *Abnegatio Nostri*는 인간이 자신의 율법적 행위들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쉬라는 말씀 대신에 더욱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하셨을 것이다.<sup>59)</sup>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를 포함하여 구원의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다.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칭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한 은혜라는 것을 기독교 신자들은 받아들이지만,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차원에서 이해하는 신학적 오류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롬 8:30)는 점을 분명히 한다. 성화는 우리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칭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화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헛된 수고를 버려야 한다.<sup>60)</sup> 이 또한 *Abnegatio Nostri*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니, 네가 받았으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고전 4:7)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 하심과 관대하심은 무궁하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마치 우리들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그 은혜에 상급을 주신다.<sup>61)</sup>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 많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중에 최고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체와 속

might learn by self-denial to render themselves up to God to be ruled by him ; for God will not work in us, unless we first renounce our own reason and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our flesh.”

59) 양낙홍, 234.

60) 박영돈, “오늘날 교회의 구원과 성화,” 박영선 외, 「구원 이후에서 성화의 은혜까지」(서울 : 이레서원, 2005), 253.

61) *Inst.*, 2. 5. 2.

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시 40:5-6). 하나님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를 포함하여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근거와 원인과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는다.<sup>62)</sup>

「기독교 강요」 영문판 번역자 배틀즈도 3권 3장 1절 주석에서 이신 칭의(以信稱義) 교리가 성화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보여 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sup>63)</sup> 구원 받는다는 것이 만약 칭의와 성화를 포함하여 구원에 있어서 어떤 자랑이라도 있다면, 이는 자신이 얻은 구원에 대하여 그 근거와 원인과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탓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실패의 길을 주셔서 인간의 본성을 꺽으시고 *Abnegatio Nostri*를 하도록 하신다.

율법의 명령들을 은혜의 맥락을 떠나서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이갈 수 있다고 오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율법의 요구들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을 가져다줄 뿐이고,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함을 더해 줄 뿐이다.<sup>64)</sup> 이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인간은 하나님께 합당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 벌 4:13). 그러므로 *Abnegatio Nostri* 가 필요하며 주일성수를 통하여 이것을 훈련해야 한다.

안식일 계명은 어떤 계명보다도 더 강조되고 더욱 엄격한 순종이 요구되었으며, 심지어 마치 종교의 핵심이 안식일 준수에 달린 것같이 중

62) 박영선, 「성화의 신비」(서울 : 도서출판 세움, 2006), 154.

63) *Inst.*, 3. 1. 8. note 2 : “The surprising order in which the treatment of repentance precedes that of justification is chosen, as Calvin indicates, to give emphasis to the doctrine of salvation by faith alone through first calling attention to its effect on holiness.”

64) 브라이언 채플, “은혜의 능력과 설교,” 박영선 외, 「구원 이후에서 성화의 은혜까지」(서울 : 이레서원, 2005), 34.

대하게 다루어졌다.<sup>65)</sup> 그러나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반면 주일이 제정되어 지켜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킬 만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일성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주일을 안식일의 규례대로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과 다른 의미에서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주일을 유대교의 안식일 규례에 따라 지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안식일 계명은 다른 십계명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 안식일을 주장한다면 할례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sup>66)</sup> 그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안식일 같은 특정한 날이 필요 없다고 하였다. 다만 예배드릴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매주 쉬는 날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루터의 영향을 받아 멜랑히톤이 작성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서도 성경은 안식일을 폐지하였으며 안식일이나 다른 날의 준수가 필수적이 아니지만, 다만 회중들이 언제 모여야 할지를 위하여 주일을 제정하였다고 하였다.<sup>67)</sup>

이러한 관점은 이미 교부들에게서 감지되었고<sup>68)</sup> 칼빈에게도 이어졌다. 그는 안식일로부터 주일로의 전환이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의 미신을 제거하는 일과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이중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sup>69)</sup>

영국과 스코틀랜드 청교도들의 교리적 통일 및 대륙의 개혁파 교회와의 연결을 목적으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로서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sup>70)</sup>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분명하게 안식일이 도덕법이며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보고 있다.<sup>71)</sup>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sup>72)</sup>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그대로 주일에 적용시키고 있다.<sup>73)</sup> 그런 깊숙에 주일에 대한 청교도들의 입장은 윤법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거나,<sup>74)</sup> 종교개혁 이전의 스콜라철학적 안식일 엄수주의의 복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sup>75)</sup> 물론 하지(A. A. Hoge)는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윤법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고 복음의 거룩하고 자유로운 정신으로 지켜야 한다고 해설함으로써<sup>76)</sup> 안식일 엄숙주의와는 다른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는 다르게 칼빈은 안식일이 의식법이며 따라서 폐지되었다고 보았다.<sup>77)</sup>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충분한 성경적 근거(롬 6:4, 갈 4:9-10, 골 2:16-17)를 가지고 있다.

70) 한영재 편, 「평신도와 학생을 위한 기독교사전」(서울 : 기독교문사, 1991), 763.

71) Westminster Confession, 21:7; James Montgomery Boice, 304.

72)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0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17번.

73) Westminster Confession, 21:8.

74) 이양호, "교회사에서 본 주일성수,"『목회와 신학』63권 (서울 : 도서출판 두란노, 1994, 9) : 66.

75) 양용의, 「예수와 안식일 그리고 주일」(서울 : 이래서원, 2009), 16.

76) A. A. 하지, 김종흡 역,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해설」(서울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8), 370.

77) *Inst.*, 2. 8. 31: "But there is no doubt that by the Lord Christ's coming the ceremonial part of this commandment was abolished. For he himself is the truth, with whose presence all figures vanish; he is the body, at whose appearance the shadows are left behind. He is, I say, the true fulfillment of the Sabbath; ; *Comm. Exodus*. 20:8: And first of all, that this was a ceremonial precept, Paul clearly teaches, calling it a shadow of these things, the body of which is only Christ"(*Colossians* 2:17).

65) *Comm. Ex. 20:8*; James Montgomery Boice, 지상우 역, 「기독교 강요 교리설교(상)」(고양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5), 303.

66) *Luther's Works* 54(Philadelphia : Muhlenberg Press, 1955), 54:52.

67) *Creeds of Christendom*, 3:69.

68) *Inst.*, 2. 8. 28.

69) 양낙홍, "칼빈의 안식일 신학,"『칼빈연구』제3집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244.

그는 안식일의 폐지를 루터와 마찬가지로 할례의 폐지와 같은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다.<sup>78)</sup>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분명히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율법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그림자 대신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안식일의 외형적 준수는 의미가 없어졌으며 실체는 할례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sup>79)</sup>

칼빈은 안식일 그 자체가 신령한 어떤 것을 담고 있는 것같이 여겨서 안식을 지키는 것은 미신적이라고 하였다.<sup>80)</sup>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주일예배의식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잘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분히 무속적인(미신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이 주일을 더럽힌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미신에 해당한다.<sup>81)</sup> 칼빈이 지적한 바와 같이 로마가톨릭 교회가 은연중에 유대인들과 같은 인식, 즉 일요일이 마치 어떤 ‘신비’ 혹은 ‘거룩함’을 지니는 것같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미신이며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다.<sup>82)</sup> 칼빈이 마태복음 12:1~8에서 주석한 바와 같이, 복음서 기자들은 외적이고 사소한 일에 신성한 모든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미신을 폭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sup>83)</sup> 날들을 지키는 것은 혓된 것이며(갈 4:10~11) 이 날과 저 날을 구별하는 것은 미신이다(롬 14:5).<sup>84)</sup> 어느 일정한 날을 종교적 근거에 의하여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 특별히 거룩성을 부여하면서 그날들을 신적 경배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78) *Comm.* Ge. 17:13.

79) *Comm.* Ex. 31:13.

80) *Inst.*, 2. 8. 31.

81) 양낙홍, 232.

82) 양낙홍, 243.

83) *Comm.* Mt. 12:1.

84) *Inst.*, 2. 8. 33.

것이다.<sup>85)</sup> 어떤 날도 그 자체로서 성스럽거나 특별한 날은 없다. 안식일이 나타내었던 참된 안식의 목적은 주님의 부활로 성취되어 그 그림자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 그림자와 같은 의식을 고집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sup>8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여 공적인 기도를 하기 위하여 정해진 날에 함께 모이며 종들과 일꾼들에게 일을 쉬게 해야 한다.<sup>87)</sup>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영적인 신비가 상징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식을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의식으로 지키므로 미신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주일을 교회에서의 질서 유지에 요구되는 수단으로서 지킨다.<sup>88)</sup> 미신을 타파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일들을 폐지하였고, 교회 안에서의 의례, 질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또다른 날인 주일을 정한 것이다.<sup>89)</sup>

안식일이 단순히 휴식을 위한 것이었다면 한동안만 유효할 것이지

85) *Comm.* Gal. 4:10 : “When certain days are represented as holy in themselves, when one day is distinguished from another on religious grounds, when holy days are reckoned a part of divine worship, then days are improperly observed.”

86) *Inst.*, 2. 8. 34 : “The purpose and fulfillment of that true rest, represented by the ancient Sabbath, lies in the Lord’s resurrection. Hence, by the very day that brought the shadows to an end, Christians are warned not to cling to the shadow rite.”

87) *Inst.*, 2. 8. 32.

88) *Inst.*, 2. 8. 33 : “For we are not celebrating it as a ceremony with the most rigid scrupulousness, supposing a spiritual mystery to be figured thereby. Rather, we are using it as a remedy needed to keep order in the church.”

89) *Inst.*, 2. 8. 33 : “For, because it was expedient to overthrow superstition, the day sacred to the Jews was set aside ; 41 because it was necessary to maintain decorum, order, and peace in the church, another was appointed for that purpose.”

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명령된 것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식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sup>90)</sup> 칼빈은 하나님께서 4계명을 주신 의도를 신자들이 하나님 예배에 스스로를 단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sup>91)</sup> 그러므로 단순히 손과 발만 쉬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유치한 미신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sup>92)</sup> 자신의 일에서 손을 떼고 자신들의 이성, 계획, 그리고 육신의 모든 감정과 애정, 지상적인 성품을 포기하고 마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하는 *Abnegatio Nostri*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sup>93)</sup> 하나님은 외식인 의식으로 만족하거나 우리의 나태함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지한 *Abnegatio Nostri*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요구하신다.<sup>94)</sup> 칼빈이 미신적인 요소만 없다면 주일이든 제칠일(안식일)이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였듯이,<sup>95)</sup> 우리도 특정한 날에 어떤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하루를 자유롭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가질 필요가 있다.<sup>96)</sup>

90) *Comm.* Ge. 2:3.

91) *Comm.* Ex. 20:8.

92) *Comm.* Ex. 20:8.

93) *Comm.* Ex. 20:8.

94) *Comm.* Isa. 56:2 : "But we must view the Sabbath in connection with everything that attends it; for God does not rest satisfied with outward ceremony, or delight in our indolence, but demands from us earnest self-denial, that we may be entirely devoted to his service."

95) *Inst.*, 2. 8. 34 : "And I shall not condemn churches that have other solemn days for their meetings, provided there be no superstition. This will be so if they have regard solely to the maintenance of discipline and good order."

96) *Comm.* Ex. 20:8 : "In this respect we have an equal necessity for the Sabbath with the ancient people, so that on one day we may be free, and thus the better prepared to learn and to testify our faith."

안식일의 의식적인 부분(일곱째 날을 지정한 것)은 폐지되었지만 도덕적인 부분, 즉 7일 중 하루를 준수하는 것은 존속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의미로 날짜만 바꿀 뿐 그날을 신성한 날로 보기 때문이다.<sup>97)</sup> 칼빈이 주장한 대로 주님의 부활이 윤법의 그림자를 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의 날'로 대치되었다는 크리소스톰의 견해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sup>98)</sup> 또한 반면에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으로 기도하고 그 밖의 혼련을 위해 모인다는 점에서는 주일은 안식일을 계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99)</sup>

칼빈이 말한 대로 안식일 제정의 의의는 신자들이 세상과 육신에 대하여 죽고 난 뒤에 자신을 포기하고 개인의 일을 중단할 때 누리는 영적인 쉼에 대한 상징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이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옛 상징은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다.<sup>10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관심과 업무를 벗어 버리고 거룩한 집회를 가짐으로써 지상적인 수고의 중지가 천상적인 혼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이용하여 보다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sup>101)</sup> 비록 안식일의 의식은 폐지되었지만 그 진리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sup>102)</sup>

97) *Inst.*, 2. 8. 34 : "They asserted that nothing but the ceremonial part of this commandment has been abrogated (in their phraseology the "appointing" of the seventh day), but the moral part remains—namely, the fixing of one day in seven. Yet this is merely changing the day as a reproach to the Jews, while keeping in mind the same sanctity of the day. For we still retain the same significance in the mystery of the days as pertained among the Jews."

98) *Comm.* 1 Cor. 16:2.

99) *Comm.* Lk. 4:16.

100) *Comm.* Ac. 13:14.

101) *Comm.* Ac. 13:14.

102) *Comm.* Isa. 58:13.

안식일의 의식은 폐지되었다. 또한 외형적으로만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렇다면 의식과 외형적으로 일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 없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물론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기만 하면 자기들의 모든 임무를 다한 것 같이 여기는 자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외형적 예배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외형적인 의식을 등한히 한 사실에 대하여 가혹하게 책망하셨다.<sup>103)</sup> 왜냐하면 그들은 외형적인 의식마저 노골적으로 범하고 종교나 신앙의 흉내마저도 거부하며 자신들의 쾌락과 정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불신앙을 이중적으로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은총 자체를 멸시했으며 이방민 족과의 외적인 구별마저 사라지게 하였기 때문이다.<sup>104)</sup>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주일성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속 사회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시켜 주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될 수 있다.<sup>105)</sup> 외형적으로나마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쾌락과 정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불신앙을 이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며 불신자들과의 최소한의 구별마저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외형적인 의식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이 율법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주일성수에 있어서 외적인 면들을 왜 그렇게 엄격하게 강조했는지를 알 수 있다.

103) *Comm. Jer.* 17 : 22.

104) *Comm. Jer.* 17 : 19-21.

105) 이문장, “한국교회의 주일성수에 관하여,” 「목회와 신학」 141권 (서울 : 도서 출판 두란노, 2001, 3), 42.

### 3. 맷음말

여러 가지 사회변화는 주일성수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일성수 약화의 원인을 종교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밝혀 내고, 그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봄으로써 주일 성수 약화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좋은 시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방법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일성수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는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정욕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석하고 추구하기 때문이다. 종교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열심히 주일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일성수는 단지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형적이고 의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일성수가 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종교사회적 상황이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애써서 주일을 지키려 하지는 않게 된다. 그러므로 종교사회학적으로 주일성수 약화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피상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정욕의 문제 자체를 다루는 *Abnegatio Nostri*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쉼의 차원에서 주일성수 약화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종교사회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주일성수의 의미를 하나님의 일을 쉬고 오히려 육체적 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주일 성수 문제를 정욕을 죽이는 *Abnegatio Nostri*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Abnegatio Nostri*는 신앙생활 전반의 핵심으로서 주일성수 문제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Abnegatio Nostri*가 없이는 주일성수 문제를

포함하여 신앙생활 모두가 외식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외식이 아닌 진정한 주일성수와 주일성수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bnegatio Nostri*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 본성에 어느 정도의 순결성과 거룩에 대한 가능성은 주장하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인생을 걸었던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주장하였고, 이는 성경적 근거가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 신앙을 계승한 자들이다.

인간의 전적 부패로 인하여 인간은 정욕의 존재가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모든 것을 정욕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해석하고 추구한다. 그러므로 주일성수 문제를 포함하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정욕의 충족을 적당히 용납하거나 더 나아가 자극하거나 채워 주는 방향에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식으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정욕의 충족을 부정하는 *Abnegatio Nostri*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일성수는 예배와 묵상 등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일을 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최대한 쉬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자신의 일은 쉬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와 묵상조차도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일성수를 통하여 이러한 인간의 정욕을 부정하는 *Abnegatio Nostri*를 훈련해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을 자연을 윤택하도록 하거나 또는 인간의 건강이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는 6일간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와 같은 실용주의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일성수는 인간의 정욕을 채워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일성수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주일성수의 목적은 유대교나 로마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자신의 윤법적 행위나 인간적 노력 등 자신의 일을 쉬는 *Abnegatio Nostri*를 통하여 칭의와 성화를 포함하여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아들이는 영적 안식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날 자체가 어떤 영적 신비나 거룩함 또는 신성이 있어서, 그날을 지키는 것이 어떤 공로가 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식의 유대교나 로마가톨릭 교회의 미신적 신학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질서유지, 예배와 묵상, 신앙훈련 등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주일과 같은 특정한 날에 함께 모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의식을 동반해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나마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쾌락과 정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불신앙을 이중적으로 나타내게 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의 최소한의 구별마저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